

일본의 양계업

산란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바라기현(茨城縣)의 양계장에서 발생한 약독성 조류인플루엔자(H5N2) 문제로 주변 농장의 조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전문가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분석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감염경로의 해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의 경우 약독성이므로 감염체로부터 배설된 바이러스는 적을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의외로 양계장의 5마리에서 항체가 검출되어 놀라고 있다.

바이러스의 전염경로는 오리 등 철새로 생각되지만, 이 분야의 연구결과 오리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닭에는 감염되지 않는 것이어서 감염되기 쉬운 칠면조나 메추리 등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에는 최초 발생 양계장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양계장에서 새롭게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이 양계장의 닭 8,550마리를 살처분 하도록 하였고 양계장의 종업원 5명을 문진이나 간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개인 통신원).



윤 병 선

한경대 GRC 전임연구원/농학박사

국제수의사무국 조류인플루엔자 위생규약 개정

국제수의사무국은 5월27일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조류인플루엔자에 관련된 동물위생규약을 개정하였다. 지금까지는 발생국으로부터 닭고기 등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으나, 이후에는 고병원성이나 저병원성의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국에서도, 동일한 질병이 발생되지 않은 지역 또는 콤파트먼트(compartment: 일정한 방역위생조치 등의 위생조건이 설정되어있는 계군)에서 21일간 사육되어 도계직전의 검사 결과 청정하다면 수입할 수 있도록 한다. 단지, 일본은 국제수의사무국의 규약이 개정되어도, 지금까지와 같이 백신접종국은 청정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으로부터 수입금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도 원칙적으로 금지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계명신문 발췌).

청년 닭 친구 클럽 결성

전국의 젊은 양계후계자 키우는 모임을 양계업계의 젊은이들의 뜻에 의하여 설립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 닭 친구 클럽」 작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불안한 가운데 서로 협조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 의한 정보교환, 농장에서의 발생, 이동제한구역 지정 등의 경우에 대비한 대책, 상권, 사육권의 확보를 목적으로 경영존속을 위한 안전망 구축도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구조와 소비형태, 물류체계가 크게 변하고 있어 양계업계의 존속과 발전을 위하여 후계자가 후계자에 준하는 젊은이에 의한 연구회와 정보교환을 위한 장소 마련하기 위한 여론이 많아져서 청년 닭 친구 클럽을 결성하게 되었다(계명신문 발췌).



특 기

HACCP에 대응한 계란·닭고기 처리시설의 신공장 준공

계란과 닭고기 판매의 대기업인 (주)후렉드(フレズ)는 나이가이(内外)사료를 중심으로 하는 나이가이 그룹의 (주)후렉드의 닭고기부와 계란부는 지금까지 2개소로 나누어 영업을 하였지만 업무 확대에 따라 가공제품에 대한 주문이 늘어 양 부분의 통합에 의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여 문을 열었다.

완성된 본사·신 공장은 택지면적 1,880평, 건물면적 693평, 총면적 950평의 철근구조 2층으로 닭고기부의 닭고기 가공 및 포장센터, 계란부의 계란 후라이를 중심으로 한 계란가공센터와 배송센터의 시설·기능을 완비하고 있고 삶은 계란 가공부는 종래의 상공센터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HACCP 기준에 의한 엄격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새 공장은 최초 설계단계부터 전문가의 조언이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높은 수준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품질향상에도 고려한 구조로 되어 있다.

새 공장은 히로시마시 외곽에 있어 구도심보다 평균기온이 2~3℃ 낮고 공기도 청정하다 이 때문에 에어컨의 온도관리나 전기요금의 절약이라는 장점도 있다. 고속도로에서 가깝고 나이가이 그룹의 계란 생산농장, (유)치요다(千代田)팜으로부터의 상품 입하도 수월하여 제품의 시내 중심부로의 배송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 이 회사 사장은「새 공장의 완성을 계기로 지금까지 이상의 소비자나 이용객이 요구하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계란·닭고기제품을 제공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계명신문 발췌).

IB 생백신 발매

(주)켄·퀴포레인션의 바이오산업회사는 이번에 닭 전염성기관지염의 생백신인 「IB 생백신(H120G)·켄」을 발매하였다. 「IB 생백신(H120G)·켄」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메사추세츠타입의 H120주(株)를 이용하고 있어 항원역이 넓고 확실한 항체응답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용법과 사용량은 「점비·점안접종」의 경우 건조백신을 60ml의 멸균정제수로 용해하여 점비·점안용기를 사용하여 1일령 이상의 병아리 코 구멍 또는 눈에 한방울(대략 0.03ml)을 떨어뜨리면 된다.

「음수투여」의 경우에는 건조백신을 물로 용해하여 일령에 따라 정해진 량을 물에 넣어 투여하며 1일령 이상의 닭에게도 투여할 수 있다(계명신문 발췌).

조류인플루엔자 영향으로 도축수 감소

2004년 가금류의 도축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육계, 토종닭, 브랜드 닭, 오리, 메추리, 거위 등의 도축수가 2% 감소하였다.

육계는 전년대비 1% 감소하였으나 총 물량은 오히려 1%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1수당 생체중량이 2.8kg으로 4%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출하 농가 수는 2% 감소하였으나 호당 출하수수는 18만 2천수로 2% 증가하였다. 한편 토종닭, 브랜드 닭은 10% 감소하였고 오리, 메추리 등 닭 이외의 조류도 3% 감소하였다(계명신문 발췌).